

동구, 올해 충장축제는 ‘시민·관광객 안전 최우선’

안전관리종합상황실 구축 신속 대응 만전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5~9일 개최하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축제 현장 시설물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13일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축

제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논의하고 문제점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20일 동부소방서·경찰서와 축제 현장을 사전 점검하며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장축제 개최 기간 동안 동구는 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금남로 무등빌딩 옆 골목에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총괄(동구청) ▲화재·응급구조를 대비한

소방 분야(동부소방서) ▲범죄·교통 안전 분야(동부경찰서) ▲시설 건축물 점검에 따른 건축·전기·가스·기계 분야(동구안전관리자문단) ▲긴급 의료 분야(동구보건소) 등이 한곳에 모여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올해 발생한 공평 지하차도 사고 등 유사한 사건·사고를 미연 방지하고자 여러차례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을 실시했으며, 축제 폐막일인 10월 9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축제 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지휘·통제 체계 등이 확립될 것”이라면서 “충장축제 폐막일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틀을 짜어있는 안전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남구, 재난시 ‘3-24H 시스템’ 가동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태풍과 폭한 등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남구에 따르면 ‘3-24H 시스템’은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중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혹서기 및 혹한기 시기에 각종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복지 지원 대상으로 관리되지 않은 위기 가구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복지 취약가구는 관내에 약 3천16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이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내 17개동 민간단체 운영 인력과 각 가구당 결연을 맺어 안부 확인 및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

을 맺은 주민은 577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위기가구 발굴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979봉사단, 복지통장 등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결연을 맺은 주민들은 취약계층 주민 1천232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1인당 평균 2~3명의 주민과 결연을 맺어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3-24H 시스템’은 혹한기 시기에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이다. 또 태풍과 혹서기 시기에도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모의 시험가동을 통해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이다”며 “추후 이상기후로 특보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시스템을 가동해 일상생활의 문제 여부 등을 단시간에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태 기자

서구, 독감 무료 예방접종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0일부터 2023~2024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했으며,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접종은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가 지원되며 ▲10월 5일(생후 6개월~13세 1회 접종 대상), 9월 20일(생후 6개월~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10월 5일(임신부) ▲10월 11일(75세이상) ▲10월 16일(70~74세) ▲10월 19일(65~69세) 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서구는 만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6천460여 명의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11월 1일~12월 9일 동안 서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한다.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 접종기간을 분리하는 만큼, 해당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문화재청이 주최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5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2024년 문화재청 공모 5개 선정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문화재청이 주최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5개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억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는 △향교·서원 문화유산활용사업 △고택·종갓집활용사업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 등 3개 분야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다.

향교·서원 분야에 선정된 사업은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인 더 시티)’ 등 2건으로, 서원을 활용한 인문 교육, 체험, 공연, 공개 토론회(포럼)가 주 내용이다.

고택·종갓집 활용 분야에는 ‘광산 사계동(夢)-네 날의 노래’가 선정됐다.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장덕동 근대한옥의 특성을 살린 기후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에서는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가 선정됐다. 마한의 생활상을 간직한 유물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광산, 문화유산 꽃이 피다’ 프로그램이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연결, 학교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기만 기자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민자치센터 간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은 북구 2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시와 공연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시 분야는 12개 동이, 공연 분야는 21개 동이 참여한다.

먼저 작품전시회는 오는 19일 금봉미술관에서 개막해 내달 3일까지 제1~3전시실에서 민화, 서예, 종이공예 등 14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220여 점의 출품작이 전시된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북구종합체육관에서 북구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댄스스포츠, 고전무용, 국악, 사물놀이 등 23개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준비한 흥겨운 공연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인 구청장은 “바쁜 와중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북구주민자치협의회, 각 동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축제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공정과 상식